

하마스 휴전 5일차에 인질 12명 추가 석방

휴전 개시후 81명 풀려나

이스라엘도 수감자 30명 풀어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5일째인 28일(현지시간) 12명의 인질을 추가로 석방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이스라엘인 인질 10명과 외국 국적 피랍자 2명 등 12명을 인제 받았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풀려난 인질들은 특수부대와 산베트의 보호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며 "우선 이들은 기초 건강검진을 받은 뒤 가족과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질 석방과 휴전을 중재한 카타르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카타르는 "10명의 이스라엘 인질 가운데 9명은 여성이고 1명은 아동"이라며 "이 가운데 1명은 오스트리아, 2명은 아르헨티나 이중국적자"라고 설명했다.

또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들과 함께 풀려난 2명의

외국인이 태국인이라고 확인했다.

이로써 일시 휴전이 시작된 지난 24일 이후 가자지구에서 풀려난 인질은 모두 81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 인질은 모두 60명, 외국인인 21명이다.

휴전 개시 후 지금까지 총 15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한 이스라엘도 이날 30명을 더 풀어줄 예정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모든 인질을 석방시키기 위해 이 휴전 체제를 완수할 것"이라며 "여성과 아동 다음은 예외 없는 모든 인질 구출"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스라엘인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3명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휴전에 들어갔고, 이후 휴전 기간을 이를 연장했다.

합의된 9시간의 휴전이 오는 30일 오전 종료되는 가운데, 양측은 카타르, 이집트, 미국 등의 중재로 휴전 추가 연장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 피난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24일 일시휴전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대선 열세' 바이든, 한국기업 공장 찾아 바이드노믹스 인플레이션 감축법 홍보

지난해 SK실트론 이어 CS윈드 방문

이른바 바이드노믹스를 앞세워 재선 도전에 나섰으나 고전을 겪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 내 한국 기업 공장을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성과 홍보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 공장을 찾은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8일 콜로라도주에 이동하는 기내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세계 최대의 풍력 터빈 제조업체인 CS윈드를 방문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이드노믹스에 따른 청정 에너지 제조업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황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콜로라도주에 대한 투자 70억 달러도 포함된다"고 장-피에르 대변인은 전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외부 단체들은 IRA가 지난 1년간 콜로라도주의 청정에너지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3500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이른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슬로건)' 공화당이 IRA, 인플레이션 등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폐지하려고 시도하면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협하

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조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는 CS윈드 푸에블로 공장은 공화당 극우 강경파인 로베르 보버트 하원의원 지역구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 에너지 정책 등을 비판하면서 사실상 IRA 폐지를 공약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는 CS윈드는 글로벌 풍력 터빈 점유율 1위인 한국 기업이다. 이 업체의 푸에블로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 터빈 터빈 제조 공장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 회사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지난 4월 공장 확장 공사에 착공했으며 2026년까지 850개의 일직리를 추가로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CS윈드는 IRA에 따른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장 방문에는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도 초청받았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시간주 베이시티에 위치한 SK실트론 공장을 방문하고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통한 공급망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백악관은 지난 16일 보도자료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에 따라 한국 기업이 최소 555억달러(약 71조8천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 기업의 투자를 강조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당시 삼성그룹의 텍사스 반도체공장 투자와 함께 CS윈드의 콜로라도 푸에블로 2억달러 투자 등을 주요 사례로 거론했다. /연합뉴스

'반유대주의 논란' 겪은 머스크 "인질 상징 목걸이 매일 걸겠다"

이스라엘 방문 인질 가족에 받아 하마스 가자 초청에 "당장은 위험"

반(反)유대주의 논란에 휩싸였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스라엘 방문 당시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가족에게서 받은 인질 상징 목걸이를 모든 인질이 풀려날 때까지 착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이스라엘 방문 이후, 가자지구를 방문해 달라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개 초청에는 위험해 보인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머스크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실이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동영상 게시물에 댓글로 "나는 당신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풀려날 때까지 매일 그것을 착용하겠다"고 썼다.

이스라엘 대통령실이 같은 날 올린 글과 동영상 내용에 따르면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 가족들과 머스크가 만난 자리에서 한 여성은 자기 아들이 하마스에 납치되면서 심하게 다친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머스크에게 휴대전화로 보여줬다.

또 다른 인질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은 가자 지구에 인질로 잡혀있다"는 문구가 새겨진 금속 인식표 목걸이를 머스크에게 선물했다.

머스크는 이 목걸이를 받자마자 직접 목에 걸었다. 이어 그는 X에서 공개적으로 이 목걸이를 인질들이 풀려날 때까지 계속 착용하겠다고 약속해 이스라엘과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 정부는 머스크가 27일 하마스에 공격받은 이스라엘 남부의 한 키부츠(집단농장)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둘러봤다고 전했다.

총리실이 공개한 영상에는 방탄조끼를 입은 머스크가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휴대전화로 키부츠 현장의 사진과 영상을 찍는 모습이 담겼다.

머스크는 또 "하마스가 제가되어 한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머스크의 이번 이스라엘 방문은 그가 최근 반유대주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그는 지난 15일 유대인들이 백인에 대한 증오를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 X 사용자의 게시물에 "당신은 실제 진실을 말했다"

고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반유대주의적인 인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머스크는 "내가 반유대주의적이라고 주장한 언론 기사들은 진실과 거리가 멀며 나는 인류의 번영,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한 최선의 일만 바란다"고 글을 올려 해명했다.

이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가자지구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공개 초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마스 정치국 소속 오사마 함단은 이날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지구 주민을 상대로 자행된 학살과 파괴의 정도를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기준에 비해 판단할 수 있도록, 그가 가자에 방문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머스크 CEO가 전날 이스라엘을 방문한 데 따른 반응으로 해석된다.

이에 머스크는 현재로서는 초청에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서 하마스의 초청에 대해 "당장은 그것이 조금 위험해 보인다"고 난색을 표했다. /연합뉴스

러시아, 2025년 오사카 엑스포 참가 취소

우크라 침공 비판 반발인 듯

러시아가 2025년 일본에서 열리는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이하 오사카 엑스포) 참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대표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 일본 방송 NHK가 29일 보도했다. 이시게 히로유키 일본국제박람회협회 사무총장이 이번 총회에서 오사카 엑스포 준비 상황을 설명한 직후 러시아 대표가 발언 기회를 얻어 "유감스럽지만, 러시아는 오사카 엑스포 참가

를 취소한다"고 불참 의사를 밝혔다.

러시아 대표는 "주최자와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NHK는 "러시아 대표가 참가 취소 이유를 상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일본과 미국·유럽의 자제에 반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오사카 엑스포에는 총 159개 국가와 지역이 참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품질보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